

# 한글날과 오순절

이강 김 현 옥 · 미국 남 일리노이 주립대학 · 언어학

나무 잎새들에 물든 단풍이 사람들을 가볍게 취하게 하는듯한 그런 날이었다. 오랫동안 비르던 한글날 잔치를 우리 집에서 치른 것이다.

몇 해 전에 유명을 달리던 시카고대학의 James McCawley 언어학 교수가 해마다 시월 구일이 되면 교수동료들과 대학원 제자들을 자기 집에 불러다가 불고기 대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언젠가는 한글을 기리는 잔치를 가져야지 하고 마음먹었다.

McCawley는 지도교수인 Chomsky에게 반기를 든 70년대의 생성문법학파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MIT 박사학위 논문이 일본말의 음운구조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보아 한글의 거를 데 없는 아름다움에 탄복했을 것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L)

오십 고개를 넘어서야 겨우 학위를 따고 시골대학에서 교편을 잡게는 되었어도 제대로 된 집 한 칸을 못가지고 떠돌아다니던 처지라 생각은 굴뚝같았어도 초라한 아파트에 동료들이나 학생들을 청하기가 좀 민망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그래도 어쩌다 약간의 처복은 있었던가. 제작년 여름 아내 Dale이 소원하던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자 처음으로 한글날 잔치를 가져 볼 엄두를 내본 것이었다.

정원에는 흰 천막도 치고, 학교 체육관에서 네트를 빌려와서 임시 배구장 마련도 하고, 크리켓 경기 세트까지 갖추어 놓았었다. 동료 교수들, 은퇴한 교수들, 대학원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 해서 그럭저럭 모인 손님이 오십 명을 넘는 상황이었다.

한국 학생들의 잔소리를 들어가며 내놓은 내 엉터리 불고기도 그런대로 호평이었는데다가, 불려와 대접받는 죄로 꼼짝없이 잡혀 앉은 내객들을 상대로 한글에 대한 나의 즉석 강의까지 곁들이는 등 제법 오붓한 한글날 잔치가 된 셈이었다.

(C)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 한글날, 한글날 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그 한글날이란 것이 국경일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지가 십년도 더 넘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독창적인 한글의 위기”라는 제목이 붙은 제작년 10월 13일자 Korea Times 사설에 보니까, 1991년 노태우 대통령 집권 당시에 과다하게 제정된 국경일이 국가경제발전에 해롭다고 주장하는 정부 지도자와 실업계 인사들의 성화 때문에 보통경축일로 격하가 되고 말았는데, 식목일, 성탄절, 석가탄생일, 어린이날들은 지키면서 한글날을 끌어내려야만 하는 데 대한 뚜렷한 명분을 찾을 수가 없고, 한글날이 다른 날들에 비해 덜 소중하다는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간다고 이 사설은 잘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끼리 만의 얘기지만, 다소 피해망상 끼가 있는 나는 격하 소식을 듣고 즉석에서 ‘하하 —, 이견 들림없이 일본 우익 국수주의 패거리들이 순진한 우리 정부 양반들과 우직스러운 실업계 아저씨들을 간악하게 구워 삶은 거로구나.’ 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임진왜란 후에 우리 한글을 일본글자라고 주장하는, 얼굴에 가죽을 뒤집어 쓴 사이비 학자들이 있었던란 말이다. 이른바 ‘가미요 문자(神代文字)’라는 것이 그것인데, 백제의 학자 왕인이 천자문을 비롯한 사서오경을 가지고 고대 일본의 조정에서 한문을 가르친 때보다 훨씬 이전에 그런 고유글자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가미요 문자’란 것이 우리 한글을 도독질한 어처구니없는 물건이었다.

에도(江戸) 말기의 한학자 반 노부도모(伴信友)의 전집에 실린 ‘가미요 문자’ 표에 담긴 47개의 글자 꾸밈새를 보면, 한글의 홀소리 글자 위에다가 닿소리를 없어서 병서가 아닌 중서로 쓰고, ㄴ은 아랫부분의 ㄴ을 잘라내고, ㅇ은 위의 반원을 깎아내어 사발 모양으로 했는가 하면, ㅎ은 고깔을 뒤집어 쓴 ㅎ 같이 만드는 등, 몇 군데 윤색은 했어도 한 눈에 한글의 표절인 것이 완연하여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금방 읽을 수 있는 실로 얼굴 따잡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절을 예사로 할 수 있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세살 버릇 여든 가도 못 버린다고, 그런 국수주의 후예들이 한국에 와서 고자질하고 돌아다녔으리라 하는 것이 내 소견인데, 뭐 증거 없는 늑다리의 헛소리라 웃어 넘겨도 나야 할 말은 없겠다. 하지만 한글날 격하 소식을 듣고 울다 좋거니 하고 손벽치고 고소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이 세상에 있었다면 이런 극우패들을 빼놓고는 없었을 것이다.

(ㄹ)

다행히 국정일 자리를 잃은지 구년 만에 한글날을 복귀시키자는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일부 여의의원들이 복귀 안을 제출하는 등의 바람직한 움직임이 있는 모양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도, George Washington 대학의 김영기 교수가 회장으로 있던 1997년도 국제 한국 언어학회에서 한글날 복원에 대한 학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것을 한국 정부에 송부했다고 듣고는 있다. 그러나 이런 운동에 대하여 이렇다 할 정부 반응이 시원찮은 것은 유감스럽기만 하다.

(ㄷ)

그러는 가운데도 특히 우리에게 흥미 있게 여겨지는 것은, 1992년 11월 10일자 인터넷 Linguist List에 백립 자유대학의 Haspelmath교수가 10월9일을 "세계 언어학의 날"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한 일이다. 그러니까, Haspelmath교수의 이 생각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반포기념일을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언어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의 축제날로 하자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한글이 한국이라는 국지적 레벨을 넘어서 세계성을 띄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이것은 한글을 더욱 발전 보강하여 국제발음기호(IPA)처럼 세계의 알파벳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서울대학의 이 현복 교수 같은 분의 이른바 한글 세계화의 아이디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착상이라 하겠다.

각각 1000여 페이지가 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 대강을 펴낸 Yale대학의 Samuel Martin 교수, 위에 말한 McCawley교수, 그리고 '문자의 체계'의 저자인 Stanford대학의 Geoffrey Sampson 교수와 같은 이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확립되어 가는 현대 음운론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의 싹이 5세기 반 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한글 창제의 이론적 바탕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아 탄복을 하고 있다. 이렇고 보면, 한글어 창제된 날을 범세계적인 "학문으로서의 언어학의 날"로 해서 안 될 것이 없어 보인다.

Haspelmath박사의 이런 제의와는 달리, 오순절 날을 '언어학자의 날'로 삼고, 그렇게 해마다 지나고 있는 교수가 하나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분의 생각은 언어학의 날이든 언어학자의 날이든 그것을 범세계적인 날로 만들기 위해서는 10월 9일의 한글날보다도 기왕에 세계 여러 곳에서 지켜지고 있는 오순절이 더 알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오순절을 언어학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지도 않다. 오늘날 오순절로 지키는 날에 대하여 사도행전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서서 40일 동안 함께하시다 하늘로 올라가신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 사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가득 찬 사도들이 하는 말이 갈릴레아 말이었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듣는 사람에 따라 바르티아 사람이면 바르티아 말로, 이집트 사람이면 이집트 말로, 아라비아 사람이면 아라비아 말로, 마치 동시통역을 하는 듯, 들렸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더라는 얘기가 다.

오순절은 오히려 "다중언어학자"의 날이라 부르는 것이 더 알맞다고 하고, 한글날은 역시 "언어학"의 날로 해야 한다는 Haspelmath교수의 주장을 알 수가 있겠다.

(ㄴ)

인도는 내놓아도 Shakespeare만은 못 내놓는다는 영국인들 말다나, 우리의 Shakespeare가 한글이요, 우리의 피라미트가 한글이란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념 찬 자랑으로 인식하게 될 때에야 세종의 한글 반포 날이 요동하지 아니하는 참된 국가의 경축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여하 간에 한글날이라는 극동의 한 나라의 축일이, 언어학과 복수언어 개념과 오순절이 얽혀 세계차원에서 접선이 되는 것이 꼭이나 흥미롭게 여겨진다.

올 해 시월 아흐레 잔치 날은 "한글의 날 - 별칭 세계 언어학의 날" 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손님들을 청해 볼까 하고 있는 터이다.